

C-3. 치근 피개술의 임상적 효과 비교

한중수*, 홍기석, 임성빈, 정진형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연구 배경

심미적인 요구와 치근 지각과민, 치근 우식 및 치경부 마모의 처치, 치태 조절을 위한 변연 조직의 외형 변화를 위해서 치근 피개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노출된 치근을 피개하는 방법으로는 유경 치은 이식 수술(측방변위판막술, 양측치간유두판막이식술, Transitional flap, 치관 변위 판막술), 유리 치은 이식 수술, 결합조직 이식 수술 또는 상피하 결합조직이식수술, GTR, semilunar coronally positioned flaps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들 술식 모두가 치은 퇴축에 효과적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특히 상피하 결합조직 이식은 이식편의 양면에서 혈액 공급을 받을 수 있어 치근 피개의 성공률이 높으며, 공여부의 창면이 작아 환자의 동통과 불쾌감이 적고, 주위 조직과의 색조 차이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상피하 결합조직 이식술에는 1985년 Langer & Langer가 발표한 Langer & Langer technique과 이 술식의 변형 형태인 modified Langer & Langer technique 그리고 수직절개를 가하지 않는 Bruno technique 등이 있다.

본 중례에서는 Langer & Langer technique과 modified Langer & Langer technique 그리고 Bruno technique의 임상적 효과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 및 재료

단국대학교 치과 대학 부속 치과 병원 치주과에 내원한 환자 중 치은 퇴축에 의한 노출된 치근(Miller class I 또는 II)을 가지고 있는 총 3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60개의 치아에 치근 피개술을 시행하였다.

Langer & Langer technique은 14명의 환자에서 32개의 치아, modified Langer & Langer technique은 5명의 환자에서 10개의 치아 그리고 Bruno technique은 11명의 환자에서 18개의 치아에 치근 피개술을 시행하고 baseline과 3개월 후에 임상지수(치주낭, 치은 퇴축, 부착수준, 각화치은의 양, 반흔 조직의 유무, 치근 피개율)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및 결론

3개월 후에 치근 피개율은 Langer & Langer technique이 평균 85%, modified Langer & Langer technique은 평균 86% 그리고 Bruno technique은 평균 90%의 치근 피개율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수직 절개를 가하지 않은 Bruno technique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고 원심 부위에만 수직 절개를 시행한 modified Langer & Langer technique이 두 번째로 좋은 결과를 보였다.